

사회복지시설 탐방 ⑤ “평화의 모친의 집”

아무도 외로이 죽어가는 이 없길



오는 5월 평화의 모친의 집이 입주하게 될 모현의료센터(왼편은 정순빈 원장)

“외로이 죽어가는 이가 없도록 보살피는 편안한 안식처가 되고자 합니다” 평화의 모친의 집(원장 정순빈·56)은 1975년 평화의 모친의원을 기원으로 1990년 5월 세워진 양로시설이다. 평화의 모친의 집은 천주교 마리아의 집 작은 자매회 소속 수녀들이 운영하는 시설로 현재 21명의 무의탁노인이 입소해 생활

하고 있다. 현재 평화의 모친의 집은 2003년 1월에 부임한 정순빈 원장과 4명의 수녀, 1명의 식당직원이 함께 노인들을 돌보고 있다. 정 원장은 “시설의 입소는 현행 복지제도에 따라 무의탁노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자식이 있지만 버려진 노인들을 모셔야 하는 필요성에 따라 약간명

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설의 운영은 무의탁노인들에게 각각 지급되는 30여만원과 후원금 그리고 봉사자들의 도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까지 운영에 있어 어려웠던 적은 없었다”는 정 원장은 “포천의 인심이 좋아서 어려울 때면 썰어뭉치며 도와주고 찾아와 주는 이웃들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 시설은 노인들을 보호하고 보살피는데만 목적을 두지 않는다.

정 원장은 “노인들과 산다고 밤만 해 줄 수는 없는 일이다”며 “상담을 통해 노인들을 이해하고 인간적인 욕구 충족하는 등 노인들과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하는 곳이라는 봉사적인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평화의 모친의 집은 오는 5월 포천동에 준공되는 모현의료센터에 입주하게 될 예정이다.

정 원장은 “모현의료센터가 완공되면 평화의 모친의 집 노인들이 더욱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며 또한 “건물에 들어서게 될 의료시설을 통해 포괄적인 사회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도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 “이는 단순히 평화의 모친의 집에 입소한 노인뿐만 아니라 관내에 어려운 형편에 놓인 노인들의 주간보호시설과 입원시설 등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될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미신고시설로 분류된 평화의 모친의 집도 오는 7월이면 신고시설로의 전환을 검토해야만 한다고 한다. 정 원장은 “현재의 상태로 큰 문제가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신고시설로의 전환은 지나친 국가의 간섭이나 보고 등의 불필요한 문제를 수반할 수 있다”며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한편 정 원장은 꾸준한 시설을 찾아와 봉사하는 봉사자들에 대한 감사의 뜻도 잊지 않고 전했다. “매주 목욕이나 빨래 봉사를 하기 위해 오는 봉사자들이 있다”며 “그분들이 없었다면 시설을 운영하는 데 큰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의 봉사자들이 지금까지 인연을 맺고 따라와 준 것은 책임감이 따랐기에 가능했을 것이라는 정 원장. 정 원장이 봉사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단 한가지 ‘책임감’이다. “봉사자들이 온다고 하면 봉사자들이 와서 필요한 부분의 일을 비워두는데 막상 오지 않을 경우에는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봉사자들이 마음먹고 3개월 이상 지속적인 활동을 계획한다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정 원장은 “지역 사회의 많은 관심 속에 지내온 평화의 모친의 집은 노인들이 편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이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후원 : 농협 175-01-146871 문의 : 031-535-2519

지역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심터

대중매체와덕담



석혜승
보문정사주지

대중매체의 발전은 우리 사회를 급속히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 필요성과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하지만 대중매체를 악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 부작용은 치명적이 되기도 한다.

요즘 대중매체가 다루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 과연 이것이 진실일까 의구심이 드는 사건들이 참 많다. 거리가 ‘누가 이러더라’,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개연성 보도들이다.

당사자 입장에서 사안이 걸린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들을 문제 제기를 하는 쪽은 아무 여과도 없이 보도를 해버린다. 아니면 말구식이다. 하지만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다 해도 이미 문제의 당사자는 상당한 피해를 입고 만다. 이런 것이 바로 흑색선전이다. 흑색선전이 잘 통하고 난무하는 세상의 미래는 결코 공경할 수도, 밝을 수도 없다.

옛말에 ‘말로서 말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라는 옛 시조가 있다. 말이 말을 닮게 하니 말을 삼키라는 뜻이다. 이러한 흑색선전으로 인한 여파는 단순히 당사자에게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다. 결국 그 피해는 사회전반에 돌고 돌아 모두를 상하게 한다.

정월에 덕담을 많이 하는 이유는 소망을 미리 말함으로써 그것이 하나의 기운이 되어 꼭 이루어지는 열매가 맺어진다. 정월달이 아닌 일년 내내 덕담이 흘러 흥흥한 민심을 따뜻하게 바꾸는 그런 매체, 그런 국민이 되었으면 한다.

필자연락처 031-542-0032

인터뷰 늦깎이 졸업생 김명학

‘꿈은 이루어진다’



지난 18일 대전대학교에서 개최된 졸업식에서 김명학씨가 가족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는 바로 김명학(56)씨를 두고 하는 말이다. 늦깎이 고등학생(포천종합고등학교 졸업)으로 포천일대에 유명해져 방송을 타고 대전대학교에 입학, 지난 18일 대전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김명학씨를 만나보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로 입학할때의 부담감은 없었나?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스무살 남짓의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는 만학도로써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다는 것이 나에게서는 어려운 길이었다. 교수님

은 나를 어떻게 볼까? 학생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학교 축제에서 교내주점을 운영을 하는데 같은 경영학과 과대표가 와서 매상 좀 올려달라고 해서 교수님을 모시고 가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교수하는 학생들과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이해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다. >학교생활과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이

어려웠다. 물론 시간적 경제적 제약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젊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처신을 하는 것이 나올까? 하는 고민을 했었다.

>요즘에는 꿈을 잃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많다. 그러한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강의를 듣다가 이리말을 들었다.

“하버드에서 한 교수가 하버드 신입생 100명에게 조사를 했었다. 나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3명만이 그렇다고 답했고 97명은 이제 세우겠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30년 후 교수는 같은 질문을 이들에게 다시 물어보았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대학 1학년 때 목표를 세운 3명이 소유한 재산이 97명의 가진 재산보다 훨씬 많았다는 것이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워서 매진하다가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한편 김명학씨는 앞으로 대학 원과정에 진학할 예정이며, 아들 김기택(20)군 역시 대학에 입학하는 것으로 알려져 김씨의 만학열은 아들과 함께 계속될 것으로 알려졌다.

양근원 학생명예기자 단장 sesuru@naver.com

선단동 청소년자원봉사대 발대식

읍면동 단위에서 전국 최초, 차세대지도자 리더십 강연회 병행



포천시 선단동읍면동 단위에서는 지난 11일 청소년자원봉사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포천시 선단동(동장 강병수)이 읍면동 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로 청소년자원봉사대를 구성해 지난 11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선단동은 2005년도의 자체 특수 시책에 의거,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 선단동 청소년지도위원회(회장 박순복)와 함께 청소년관련 각종 프로그램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번 청소년자원봉사대 구성도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결실을 보게 됐다.

이날 발대식은 자원봉사 청소년들과 함께 각급 기관·단체장, 동장, 새마을지도자, 누너회장 등 모두 100여명이 참여해 봉사대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내 보였다. 선단동은 이날 발대식과 함께 포천시 청소년상담실 소장인 경북대학 김명진 교무처장을 강사로 초빙해 “차세대 지도자 리더십 강연회”를 개최했다. 강연회 참석자들은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지도층인 사들이나 학부모들이 어떻게 이끌어 주고 또 무엇을 해 주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는 뜻 깊은 기회였다고 입을 모았다.

앞으로 선단동과 선단동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청소년자원봉사대”에 참가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각종 다양한 자원봉사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나가는 한편, 차세대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여름방학 등을 활용해 청소년들에게 각종 체험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캠프도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배 기자 94spice@hanmail.net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포천시지부는 지난 17일 포천시재향군인회 회의실에서 내빈 및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회원단합·지회운영의 활성화”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포천시지부 2005년도 정기총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포천시지부(지회장 서동원)는 지난 17일 포천시재향군인회 회의실에서 내빈 및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총회원 79명중 56명의 참석으로 성원되었으며 김영일 사무국장의 사회로 공포자에 대한 표창수여와 장병수 지도위원의 감사보고, 서동원 지회장의 2004년과 2005년의 사업실적 및 계획에 대한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4일 실시한 2004년도 감사 결과 보고서 장병수 지도위원은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정관 제35조 및 제43조 규정에 의거 지회 사무 및 예산회계 업무와 운영 전반에 대해 제 규정에 위배없이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서동원 지회장은 >국제

수호와 호국안보 정신의 진작 >정부보훈시책 준수 및 국가 사회발전에 공헌 >회원단합단결과 지회운영의 활성화를 2005년도 사업 중점으로 삼고 >보훈의 달 행사 >반월산성 및 유공지에 대한 자연보호운동 >투병자, 노약자, 극빈자 등 불우회원 지원 >회원 및 지회간 상호교류 등 조직단합 >보훈제도안내 등의 민원업무 >정기회의 및 임원회의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정기총회에 앞서 >경기도 지부장상에 이기영 지부위원 >포천시장상에 윤근일 지부위원 >보훈지정장상에 김유환 지부위원 >포천시의회 의장상에 김영일 사무국장이 표창을 수상했다. 지역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고/향/생/각



정겨운 노래

조귀순 (포천시 가산면 출생, 수필가)

예전 농사를 짓던 어머니들이 노래 부르는 일은 그리 흔하지 않았다. 농번기가 끝난 겨울, 구경을 쇠고 대보름까지가 노는 주기였다. 아버지들은 전방에 모여 술내기, 계란, 국수 삶아먹기 화투를 치고, 어머니들은 번갈아가며 떡국을 끓였다. 떡국을 먹으러 오라는 것은 그 집에서 한바탕 놀자고 부른 것이다.

그 날, 뒷밭에 사는 친구의 오빠가 월남한 데 갔다가 선물을 사왔다고 하여 구경을 갔다. 유리상자 안에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의 일색 드레스를 입은 인형들은 정말 예뻐다. 친구의 자랑에 신기하 듯 바라보고 있는데 아주머니들께서 물러오셨다. 그녀의 어머니도 아들이 무사히 돌아왔으니 기뻐, 떡국을 끓여 한턱을 내는 날이다. 우리들은 떡국 한 그릇을 얻어먹고 구석에 웅크리니 모여 앉았다. 구경거리가 생겼다.

광복이불 호칭을 뺀 커다란 고무(다라) 함자에 물을 가득 담아놓고, 뒷간지붕에서 따다 건 제1 큰 박을 얻어놓았다. 흥이 많고 힘이 좋은 아주머니가 어깨를 들썩이며, ‘아니~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하늘과 같이

아 넘말과 점말까지 들리도록 소리를 질렀다.

‘~~늘어진 버들가지 잡고서 탄식해도 남 군인 아~니 오고 서~산에 해 지네.’ 개나리 처리가 끝나고 제지각 관 끝는 소리가 난다. 지척까지 거다~한양철리 떠나간들 어이 너를 잊을 소냐~~~.

학교가 가까워지며 노래 소리는 차츰 멀어졌지만 수업을 마치고 마을 어귀에 들어섰을 때는 여전히 울렸다.

“춘향이 우지마라~ 다달래에여 꺼어엿 어 어엿마란~~~”

꺼어엿 꺼어엿가며 어른마냥 구성지게 노래를 따라 부르는 아이도 있었다. 부역을 하시는 어른들도 아마 흥얼흥얼 따라 부르며 흐르는 땀을 씻어내셨으리라. 그 때 귀가 따갑도록 자주 들었던 노래들이었다.

그러는 중에 낱말 아주머니가 분위기를 바꾸기도 하였다. “석탄 백탄 타는 데엔 연기만 솔솔 나는 데, 이내 가슴 타는데엔 왜 연기도 김도 안 나느냐.” 무슨 한이 그리도 가슴에 쌓였을까. 그러자 “찌증은 내서서 무엇 하나. 성화를 받쳐서 무엇 하나~, 위로라도 하듯이 태평 가 한 대목으로 받아주었다.

“대보름날엔 풍년들게 웃이나 한편 놀자구요.”

어느새 햇살이 들창문을 비껴가고, 아주머니들께서는 내내 부르던 노래로 합창을 하며 훌훌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저녁 지으러 이 집 저집 때문으로 돌아가시는 어머니들의 가슴을, 안아주고 달래 주었던 노래들이 언제부터인가 부쩍 정겹다.

noeu40@hanmail.net

“배움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주)고은 박명희 경리부장 가정학전문학사 취득

“늦지 않게 공부를 시작한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느끼는 기쁨은 말로 다 표현 못하지요”

지난 2003년에 한양여자대학 여성인력개발과 입학, 지난 18일 가정학 전문학사를 취득한 (주)고은의 박명희(사진)씨에게 지난 3년은

어려움보다는 아름다운 추억이다. 1993년 8월 (주)고은에 입사한 박명희 씨는 회사생활과 병행하며 배움의 꿈을 하나씩 실현해나가며 이번 졸업식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회사생활과 학업을 수행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용기를 내어 도전한 만큼 각오가 남달랐다.

식물기르기 ⑥ - 벤자민

한번쯤 누구나 길러 보았을 식물이다. 벤자민은 잎이 많아서 공기정화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며 늘어진 가지에 백백이 잎이 달려 실내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주기도 한다. 아주 깔끔을 떠는 식물이다 보니 햇빛을 쬐지 않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듯하면 바로 알려준다. 잎을 우수수 떨어뜨리고 사람을 터치지하려 애쓰는 듯 보여진다. 잎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면 가지 전체에 축축한 비닐을 덮어 씌운다. 따뜻한 곳에 두고 물을 자주 주게 되면 새로운 잎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식물은 절대 유향유기질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 벤자민을 어디에 둘까? 햇빛이 잘 드는 거실에 좋다. 또 물 주기는 겨울엔 3일에 한번 여름엔 매일 주는 것이 좋다. 벤자민에 관한 일화가 있다. 연구실로 앙상하게 가지만 남은 벤자민을 어떻게 하느냐고 가져온 사람이 있었다. 상태를 보니 햇빛을 못 받 가지가 웃자라는

것이 문제였다. 영양상태도 문제였고 연구생들과 벤자민 일년생 살리기에 공을 들였다. 고기를 물에 담그어 흔히 버리는 피물이 관엽식물에게는 윤기도 나게 하고 철분을 공급해 준다.

제일먼저 이 방법을 2주 정도 지나자 새로운 잎들이 새싹이 나오듯 얼굴을 내밀 때 그 행복감. 그러다 보니 지금도 연구실에는 입원중인 식물이 여러 가지가 있다. 식물병원처럼 요즘 집안에 있는 또한 식물들이 휴면기간이다. 봄에 꽃을 피우려 겨울 내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물에게도 감정이 있기에 잘 가꾸어 보자. 환경오염에 시달리는 이때에 가정원예식물을 잘 기르면 맑은 공기로 넘치는 사람이 되리라 좋겠다.



박명희씨는 앞으로 “회사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뒤늦게 배운 가정학을 토대로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고 싶다”며 “회사생활을 참고 학업의 뜻을 펼친 결과, 큰 탈없이 졸업한 것이 기쁘다”고 밝혔다. 지역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정선교 주부명예기자단 가산지부장 대전대학교 평생교육원 플라워디자이너 겸사

user0316@nate.com